

‘자기완성·주변정화’ 곧 불교

하안거 해제 현장 불영사 천축선원을 가다



8월 21일 해제를 맞은 불영사 천축선원의 수좌들이 만행 전 주지 일운 스님 등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해제 3일전 재가자들과 수행하는 것이 불영사의 수행가풍이다.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하루 앞둔 8월 20일. 아직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경북 울진군 천년고찰 불영사 내 천축선원에는 삼복 더위도 아랑곳 없이 비구니 스님 20여명이 막바지 수행에 여념이 없다.

잠시 후 죽비 소리에 가부좌를 펴고 스님들은 선원 앞 마당에 나가 원을 그리며 포행을 한다. 이처럼 천축선원 수행현장이 공개된 것은 2002년 이후 11년 만이다. 천축선원은 주지 일운 스님이 1978년부터 운영하던 조그만 선원을 1995년에 재불사하면서 불여전 이름이다. 그러나 천축선원만의 역사를 따지면 19년이 된 셈이다. 이 선원은 율을 강조하는 주지 일운 스님의 방침에 따라 청규가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천축선원에 방부 든 스님들은 새벽 3시에 기상해 예불을 시작으로 하루 10~12시간의 수행을 한다. 좌선과 정진, 포행 그리고 일종의 노동인 울력 등 짝 짝 여진 일과대로 하루가 뻘뻘하게 돌아간다. TV와 휴대전화는 물론 신문 잡지 등 외부세계와 연결된 것은 전편 금지다. 외부서 연락이 와도 종무소를 통해 금한 일만 취사선택해 본인에게 전달한다.

일운 스님은 “쓰레기통에 담겨진 음식이 더럽기 때문에 먹을 수 없듯이 우리 수행자들은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승려라 할 수 없다”며 “계율을 지키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수행이 깊어지기 때문에 지계를 엄격히 강조하는 것이 천축선원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이 스님은 “성중법중, 성경법경이란 말처럼 스님이 높아야 법이 높아지고, 스님이 낮으면 법 또한 낮아지는 법”이라며 “자기완성을 통해 주변을 정화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란 생각에서 1년에

두 차례만 산문을 열고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운 스님 옆에서 묵묵히 있던 한주동민 스님도 한마디 거들었다. “선방 수좌로서 전국의 제방선원을 돌며 수행에만 매진하다보니 직선적이 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이 부족했었다”며 “이곳 불영사서 수행과 함께 자비 실천도 펼치니 중생과 함께하는 하화중생의 근본 진리를 깨달아 가게 되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불영사의 수행 가풍중에는 특이한 점도 하나 있다. 20여 년째 안거 해제를 엄격한 청규 통한 수행생활 강조 일운 스님 “지계, 심신 청정하게 재가자 1백명 3일 정진” 20년

3일 앞두고 1년에 두 차례(하안거, 동안거)씩 재가불자 1백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날도 선법전에서 1백여 재가불자들이 정진하고 있었다. 참선 후에는 ‘오후불식 묵언수행’이란 패찰을 저마다 목에 걸고 절 마당을 포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제날 선방 스님들과 해제법회에 참석해 함께 회향한다.

한해도 빠지지 않고 재가자 하안거 템플스테이에 참석한다는 남명숙(49) 보살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겨 번뇌에 빠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집중 수행하다보면 집착과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산문을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을 20여년째 직접 지도하며 함께 수행하는 주지 일운 스님은 “수행할 때 화두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 근기에 맞게 염불 정진을 시킨다. 염불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상을 다스릴 수 있다”며 “망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염불은 공덕이 따르기 때문에 하근기 수행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여러식음을 제대로 자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덧붙혔다.

일운 스님은 또한 현대인들에 대한 충고도 밝혔다.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내 자신의 실체를 알면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님이 안거전 재가자들을 위한 수행법회를 여는 것도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일운 스님은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묻자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우주를 만든다. 부처님이 그런 것처럼 나를 낳고 모두 참고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면 스트레스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8월 21일 해제까지 선원서 수행을 마친 스님들은 다시 중생 속으로 만행(萬行)을 떠났다. 3개월 동안 외부와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한 스님들이 속세로 나온 것이다. 불영사 천축선원에서 안거를 무사히 마친 20여 스님들도 결망을 지고 산문을 떠났다.

울진=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論하고 노래하고...9월은 평화의 달

D-30 한반도평화대회, 어떻게 진행되나?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개월간 불교계를 시작으로 사회에 번지고 있는 평화기원 분위기가 막바지 본 행사를 앞두고 무르익고 있다.

먼저 8월 28일 오전 9시에는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쟁’을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려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가 제시된다. 포럼에서는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반도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이자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불교의 평화론과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대한 기초 발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르크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왕후이 중국 칭화대 교수 등이 세계 석학들이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 문정인·박명림 연세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등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본 행사를 3주 앞둔 9월 3일에는 용산전

쟁기념관에서는 KBS평화기원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이 음악회에는 불자가수 남진, 웅산, 아웃사이다 등이 출연한다. 평화대회 운영위 측은 열린음악회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아시아와 한국전쟁’ 포럼 8월 29일 언론재단 회의장서

불자가수 출연 평화 음악회 9월 3일 용산전쟁기념관서 2일까지 통도사 평화 법회

본 행사 9월 27일 범어사 평화의 불 이운식 등 다채 사부대중 7만 명 운집 예상

행사 전날까지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는 오전 10시 평화기원 기도법회가 봉행되며 서울과 부산지역 사찰에서도 기도법회가 진행된다.

본 행사일인 9월 27일 오전 10시에는 1000여 스님이 UN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금강경을 독송한다. 독송 이후 스님들이 이동하는 올림픽아트 주경기장까지의 길에는 평화의 등이 걸린다. 운영위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내 곳곳에 10만개의 평화의 등을 설치해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올림픽아트 주경기장에는 연꽃을 형상화한 18m 규모의 대형무대가 마련되며 약 7만여 불자들이 운집해 경기장을 가득 채워 환희심을 더한다. 행사에서는 도선사 주지 해사 스님의 ‘툼비나동산 평화의 불 이운식’을 시작으로 남북한 및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글 낭독, 평화선언, 천도재 등이 진행된다.

본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석이 추진되고 있다. 이어 열린음악회와 진행된다. 사회는 박칼린 씨가 맡으며 인순이, 바비김, 김건모, 성악가 폴 포츠 등이 출연해 대중들과 친밀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꾸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무원장 후보 추대 ‘가시밭길’

선원수좌회 ‘불교광장’ 추대위서 이탈... 무량회도 조짐

매번 반복되는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구성된 불교광장 추대위원회의 후보 추대 활동이 난관에 봉착했다.

가장 먼저 최대 정책모임인 불교광장에 참여하고 있는 前 무량회는 8월 19일 오후 비공개 총회를 열고 8월 26일까지 자승 스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 불교광장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불출마 선언을 종용한 것이다.

前 무량회가 이 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은 불교광장으로 통합 당시 전제된 자승 스님의 불출마가 지금까지도 불출마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대표가 교체된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정찬, 원각)도 19일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열린 해제 회의에서 불교광장의 후보추대위원회와 갈마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주요 단체의 이탈과 정책모임의 예상된 선 굵기로 사실상 불교광장 추대위원회의 후보 추대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가 교역직 총무원의 불교광장 추대위원회 참여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부분도 불교광장에게는 압박이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중단 선거법 제7조 및 제41조는 ‘총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각 총무원

26일 추대위 존속여부 결정 무량회, 자승스님 불출마 종용 선관위, 교역직 참여 자제 권고

의할 예정이다. 불교광장은 8월 22일 공동대표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열고 26일 추대위 3차 회의에서 위원회 존속 여부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교광장 대변인 덕문 스님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혼탁한 선거전 대신 불교의 전통 방식인 산중공의를 통해 총무원장 후보를 추대하고자 불교광장이 주도해 추대위를 만들었다”면서 “중앙선관위의 교역직 스님들의 추대위 참여를 자제하는 권고도 있고 여러 논란들이 있어 추대위 존속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특정한 후보를 정해 놓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며 “교역직 스님들의 추대위 참여를 권고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른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이 같은 안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 차주 상보〉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특별 전시회

범어 서화전(근원 김양동) 열반 보도 사진전

- 전시기간 : 2013년 8월 30일(금) ~ 2013년 9월 15일(일)
- 개 막 식 : 2013년 8월 30일 오후 5시
- 개막식 및 전시 장소 :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층
- 문 의 : 02)2198-5101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자기를 바로 봄시다”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읍시다”

한 평생 울곧은 수행으로 불자와 국민들의 정신적 스승이 되셨던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열반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부처, 성철 스님의 법향(法香)을 느낄 수 있는 특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상의 한 벌’ 김양동 작